

中東 原油市場과 韓國 建設輸出展望

— 韓國開發研究院 —

이 資料는 韓國開發研究院(KDI)의 「KDI 分期別經濟展望」 82年3/4 分期号에서 옮긴 것이다. (編輯者註)

I. 序 論

韓國은 1973年 中東에 進出한 이래 中東産油 諸國의 經濟·社會開發의 本格化와 더불어 建設·用役 및 産品輸出이 急伸張되어왔으며, 이로 인한 外換受入은 國際收支·成長 및 雇傭創出에 重要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1978年末 第2次 石油波動의 衝擊으로 世界經濟 特히 世界原油의 70% 이상을 消費하는 先進國 經濟의 沈滯 持續 및 이로 인한 原油 需要減退로 1981年初부터 原油의 供給過剩 및 現物市場 油價의 下落이 시작되었다. 또한 非OPEC의 油原生産이 상대적으로 急伸張함으로써 OPEC는 油價의 下落을 방지하기 위해 生産減縮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는 産油國의 經常收支의 惡化를 招來하였다. 이와같이 趨勢는 原油需要가 急激히 增加하지 않는 한 상당한 期間동안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産油國 特히 中東産油諸國의 經常收支 惡化는 이들 國家들의 經濟·社會開發의 縮小調整 내지 遲延의 可能性을 높게하며, 이는 이미 우리나라 建設輸出에 主要한 制約要因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本高의 主目的은 對中東 建設輸出이 韓國經濟에 미치는 重要性을 勘案하여 世界原油市場展望, 中東의 産業化 方向 및 世界經濟回復展望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建設輸出 展望과 이의 對外 競爭力 強化方案을 提示함에 있다.

II. 原油市場과 世界經濟

原油市場의 變動이 世界經濟에 直接·間接으로 매우 重要한 影響力을 미치게 된다는것은 第

1.2次 石油波動을 통해서 분명히 立證되었다. 石油 輸入國의 立場에서 보면 直接的인 影響으로 原油의 實質價格의 下落은 原油 輸入代金의 經減 및 國際收支의 改善과 對內的으로 物價安定 및 實質所得의 增加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油價의 下落은 世界 各國 特히 先進國의 國際收支의 改善, 인플레이션 減少, 投資增大등을 通해 景氣回復의 促進 및 輸入需要의 增大를 誘發하며, 이는 後進國의 對先進國 輸出이 促進되는 效果가 發生하게 된다. 反面, 油價의 下落 및 需要의 減退는 産油國의 外換收入이 減少하여 이것이 開發計劃의 縮小調整 내지 遲延을 招來하며, 이는 對産油國 商品, 建設 및 用役 輸出의 鈍化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같은 原油市場 變動效果를 韓國經濟의 立場에서 綜合해 보면, 國際原油價의 下落은 原油 輸入代金 減少를 通한 國際收支의 改善, 物價安定 및 對先進國 輸出促進이라는 밝은 展望과 産油國 建設工事 發注의 減少 可能性이라는 어두운 면이 共存하게 된다.

III. 中東과 韓國經濟

1. 中東市場의 特性 및 建設工事 發注 推移

中東諸國은 國民經濟의 대부분을 石油單一品 目에 依存하고 있는 石油「모노컬처」(monoculture)의 經濟的 特性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中東國家에서는 總輸出 中 石油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이 95%를 上廻하며 國民總生産 中에서 石油부문이 차지하는 比重도 6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란·이라크를 除外한 다른 國家에서

는 石油 以外의 国内生産은 극히 微微하며 따라서 食料品을 포함한 거의 모든 商品을 外国에서 輸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国家들은 限定된 石油資源을 토대로 脫石油 産業化를 長期的 政策目標로 삼고 있다.

産油國들은 70年代의 急激한 油價上昇에 힘입어 莫大한 石油輸入을 올려왔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意慾的인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해 오고 있다. 그동안 中東産油國의 經濟開發計劃은 開發初期段階인 社会間接資本 扩充이 主가 되어 왔고 이에 따라 道路, 港灣, 住宅建設, 灌溉 등 建設工事的 發生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東의 總建設 發注量은 77년까지 上昇勢를 보이다가, 78·79년에 크게 減少하고 80年 以後 또 다시 加速的인 增加趨勢를 示顯하고 있다. 이러한 循環的 趨勢는 原油價格의 變動과 이에 따른 中東諸國의 經濟政策과 密接한 關連이 있다.

즉, 1973·74年の 1次 石油波動 후 産油國들은 石油收入의 大幅의 增大에 따라 經濟成長에 注力하여 總需要擴大, 특히 投資擴大 등 政策을 推進하였다. 이로 인해 非石油部門의 成長勢는 높았으나 지나친 公共支出 및 이에 相應하지 못

〈表-1〉 中東諸國의 國民經濟上 石油比重(1980)
(單位: %)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石油輸出/總輸出 ¹⁾	99.9	94.4	99.2	89.8	99.9	93.8
石油부문GDP/GDP ²⁾	70.7	30.6	51.2	55.3	-	59.7

資料1) IMF, IFS, 1982. 5.

2) WFA, Middle East Economic Outlook, 1982. 4.

하는 供給面의 隘路로 因하여 物價 및 貨金이 急上昇하였고 貨金의 上昇은 外国 勞動者의 流入을 促進시켜 왔다. 그러나 76년부터 油價가 비교적 安定勢를 보이기 시작하여 石油收入의 增加率은 緩慢한 반면 政府의 支出은 繼續 增加하여 財政上의 制約에 逢着하게 되었다. 따라서 78년부터는 政府支出의 減縮 및 開發投資支出의 縮小調整이 이루어져 物價도 安定勢를 回復하게 되었다. 79年末 이후 第2次 石油波動에 따라 石油收入이 다시 增大되면서 80년부터는 또 다시 膨脹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다. 이러한 膨脹政策의 結果로 設備 및 社会間接資本投資가 增加하여 非石油部門 GDP가 현저히 增大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81년에는 繼續的인 經濟成長의 持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中東과의 交易

韓國의 對中東 交易은 70年代初까지는 原油輸入이 전부였으나, 73년에 建設業體의 進出을 계기로 建設·用役 및 商品輸出도 增加하기 시작하여 總輸出중에서 中東地域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도 점차 높아져 왔다. 그러나 油價의 昂騰 및 原油消費量의 增加로 原油導入額도 현저히 增加하여 對中東 貿易收支는 그 赤字幅이 점차 擴大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74년에 總輸出중에서 中東地域輸出이 占하는 比率이 2.6% 이던 것이 77年 이후 平均 10% 이상을 차지하는 현저한 伸張勢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對中東 輸入중 98% 이상을 占하는 原油輸入額이 第2次 石油波動 이후 急激히 上昇하여 對中東 貿易

〈表-2〉 中東諸國의 建設工事 發注推移

(單位: 億달러)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1~5月)
사우디	126.1	232.2	124.8	135.2	181.7	192.0	122.8
이라크	34.7	19.2	34.1	49.2	97.4	208.2	11.8
리비아	26.2	25.2	30.0	20.9	30.9	150.1	5.7
쿠웨이트	13.4	12.9	12.1	12.3	22.5	23.9	15.4
아랍에미리트	21.7	32.0	9.1	10.7	12.8	16.3	2.8
알제리	39.5	28.9	19.9	21.2	6.3	11.9	37.2
其他中東國	102.4	225.1	74.2	53.9	43.3	77.9	27.0
합계	363.9	464.3	304.2	307.2	394.2	680.3	227.7

註: 件當 100萬弗 이상의 金額이 밝혀진 계약만 集計. 특히 國防關係分野 建設發注額은 거의 包含되지 않음.

資料: MEED, 各號

收支의赤字幅은 78년에 9.4億달러, 79년에 17.7億달러, 80년에는 35.5億달러로 점차 擴大되고 있다. 81년에 들어서는 油價安定 및 輸出增大에 힘입어 赤字幅이 31.8億달러로 다소 縮小되었다.

3. 對中東 建設輸出 現況

우리 나라의 建設業體가 73년에 中東에 첫 進出한 이래 總建設受注額 중 中東地域 契約実績은 73년에 13.8%, 74年 34.2%에서 75년부터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76年 이후 建設受注의 急增에 따라 막대한 外貨流入이 이루어져서 82年 5月까지 中東에서 의 純外貨入金額은 累計 95億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中東으로부터의 外貨受入은 우리 나라 貿易外貨收支의 1/3을 上廻하고 있다. 또한 雇傭面에서 볼 때 82年 3月 現在 中東 建設現場에 進出해 있는 人員은 建設이 15萬名, 用役이 5千名 등 15萬5千여명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國內에서의 誘發 雇傭人員 13萬名을 합하면 中東建設 關聯 就業者數는 29萬名에 이르러 國內 全體

就業人口數 1,240萬名의 2.3%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對中東 建設受注額은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年을 고비로 약간 下向勢를 維持하다가 81年 이후 현저히 增加되는 樣相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建設受注額의 增加에 反해 最大受注國인 사우디아라비아의 開發豫算에서 우리 나라 建設受注가 차지하는 比重은 78년에 23%를 고비로 점차 下落하여 81년에는 12%에 달하고 있다. 이는 產油國들의 自國化政策 및 餘他 先進 建設業體와의 建設受注競爭의 深化의 結果로서 앞으로의 受注展望에 問題點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中東建設市場 進出初期에는 높은 工事單價, 產油國의 持續的 投資擴大 및 우리 나라의 低賃金으로 인해서 收益性이 높았으나, 70年代 後盤 國內景氣의 過熱化로 賃金이 急上昇하고 80年代에 접어들어 餘他國家들의 對產油國進出增加로 受注競爭이 激化되어 收益性 및 外貨稼得率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建設工事의 收益性은 76年 15.2%, 78년에 15%에서 79年 7.9%로, 81년에는 5%로 下落하였고 外貨稼得率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76年 以前의 42.4%에서 81년에는 23%로 下落

(表-3) 中東¹⁾ 과의 交易

(單位: 百萬달러)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總 輸 出 (A)	4,460	5,081	7,715	10,046	12,711	15,055	17,505	21,254
對 中 東 輸 出 (B)	118	299	651	1,166	1,273	1,385	1,824	2,246
中東占有率(% , B/A)	(2.6)	(5.6)	(8.4)	(11.6)	(10.0)	(9.2)	(10.4)	(10.6)
總 輸 入 (C)	6,852	7,274	8,774	10,811	14,972	20,339	22,292	26,131
對 中 東 輸 入 (D)	371	1,277	1,618	1,968	2,208	3,150	5,372	5,424
中東占有率(% , D/C)	(5.4)	(17.6)	(18.4)	(18.2)	(14.8)	(15.5)	(24.1)	(20.8)
對中東貿易收支(B-D)	- 253	- 978	- 967	- 802	- 935	- 1,765	- 3,548	- 3,178
原 油 導 入 額	965	1,293	1,607	1,961	2,187	3,164	5,358	6,237

註: 1)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립지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이집트, 리비아.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號.

(表-4) 建設輸出現況 및 中東의 比重

(單位: 百萬달러)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A. 總 契 約 實 績	174	260	815	2,501	3,516	8,145	6,351	8,259	13,681
B. 中東契約實績	24	89	751	2,429	3,387	7,982	5,958	7,831	12,674
B/A (%)	13.8	34.2	92.1	97.1	96.3	98.0	93.8	94.8	92.6

資料: 建設部

하였다. 또한 81年初 以来 需價의 下落 및 世界 景氣沈滯 持續으로 인한 需要減少 및 OPEC 國家의 石油 生産增加로 인하여 中東産油國의 需要가 相對的으로 減少하게 되고 産油國의 石油 收入이 減少하자 建設工事代金의 支拂도 圓滑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結果 從前에는 發注時에 總工事費의 20~30%를 支給하던 先受金도 10% 以下로 줄어들었으며, 또한 既成高에 대한 未收金도 增加하였다. 例를들면, 사우디아라비아 市場에서 만도 81年 11月까지의 工事未收金이 15億弗에 달하고 있다.

收益性 低下뿐만 아니라 技術制約工事의 受注比率 또한 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다.

〈表-5〉에서 보듯이, 建築工事의 發注比率은 높아지고 있는 反面 土木工事의 비중이 低下되고 있다. 또한 점차 發注額이 增大되고 있는 技術集約的인 機械·電氣·通信·用役 등의 受注比率이 79年에 27%에서 80年 및 81년에 各各 8.2%, 7.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先進國에 비해 技術蓄積이 未洽한데 그 主因이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

〈表-5〉 海外建設의 工種別 比重 推移

(單位: %)

	1966~76	1977	1978	1979	1980	1981	累 計
土 木	64.0	44.7	24.9	26.4	45.3	36.7	37.7
建 築	21.3	29.1	61.1	46.6	46.6	55.6	48.4
其 他	14.7	26.2	15.0	27.0	8.2	7.7	13.9
機 械	12.0	19.3	5.7	19.2	4.7	5.1	8.9
電 氣·通 信	2.3	6.1	7.6	7.4	3.3	2.1	4.6
用 役	0.4	0.8	0.7	0.1	0.1	0.5	0.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建設部

IV. 原油市場 變動과 産油國 經濟 展望

1. 世界 原油市場의 現況

1. 2次 石油波動으로 急上昇하여 오던 世界原油 價格은 79年末 사우디아라비아産 輕質油(arabian light)가 現物市場에서 最高 배럴당 39.5 달러를 記錄했던 것을 고비로 점차 下落하기 시작하여 81年 中盤 以後에는 現物市場價格이 公示價格을 下廻하게 되었다. 이러한 推移는 82年 들어서도 繼續되어 3月 들어 現物市場價格이 中東産 輕質油를 基準으로 할 때 배럴당 28달러 까지 下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OPEC 國家들은 3月19日 비엔나에서 OPEC 臨時總會를 열고 石油生産量의 大幅의 減縮과 國家別 生産 配分을 採擇·實施하기로 議決하여 原油價格의 더이상 下落을 저지

하자는데 意見을 같이하였다. 이 議決이 奏效함으로써 油價는 5月 들어 現物市場價格이 公示價 水準으로 回復되었다. 그러나 最近에 OPEC 內 一部 生産減縮으로 인한 經常收支 赤字를 補填하기 위해 自國 生産割當量 以上으로 原油 生産을 增加하고 있으며 이란·이라크戰爭이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면서 現物市物價는 다소 動搖하고 있다.

81年 以來의 油價變動의 主要因을 需要 및 供給 側面에서 大別하여 보면, 需要側 要因으로는 第2次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80년부터 3年째 持續된 世界經濟, 특히 世界原油의 70% 이상을 消費하는 先進諸國의 石油 需要減退의 直接的 要因이었고 油價急騰으로 인한 에너지節約 및 代替에너지 開發努力이 石油需要萎縮의 間接的 效果로 作用하였다.

둘째, 供給側 要因으로는 短期的으로 81年 下半年부터 시작된 先進國의 在庫放出이 加速化되고 長期的으로는 非OPEC 國家의 生産量이 漸

증하여 OPEC이 世界石油需要減少로 인한 相對的 供給過剩 原油量을 調節하는데 失敗하여 供給過剩이 發生하게 되었다. 敷衍하면 國際的

高金利로 인해 在庫維持費用이 暴騰 年間6~11달러까지 上昇하였고 石油製品價格 下落 및 價格安定化 展望으로 81年末에 103日分으로 正常

〈表-6〉 最近의 油價 變動(中東産 輕質油)

(單位: 달러)

	1979				1980						
	1/4	2/4	3/4	4/4	1/4	2/4	3/4	4/4			
公式價格	13.48	16.15	18.89	22.84	27.17	28.82	30.21	31.33			
現物市場價格	18.35	18.35	32.90	38.17	36.58	35.52	33.30	38.63			
	1981				1982						
	1/4	2/4	3/4	4/4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公式價格	32.60	33.00	33.05	34.16	34.00	33.85	33.55	33.55	33.40	33.40	33.70
現物市場價格	37.32	33.58	32.06	33.73	34.00	30.40	28.20	30.88	33.34	32.65	31.50

資料: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各號.

〈表-7〉 先進國 經濟成長率 및 自由世界 石油 消費增減率

(單位: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消費量 增減率(%)	7.8	-3.4	-2.4	6.2	3.1	2.8	1.4	-4.5	-5.2
經濟成長率(OECD國家)	6.1	0.9	-0.4	4.9	3.7	3.8	3.4	1.3	1.25 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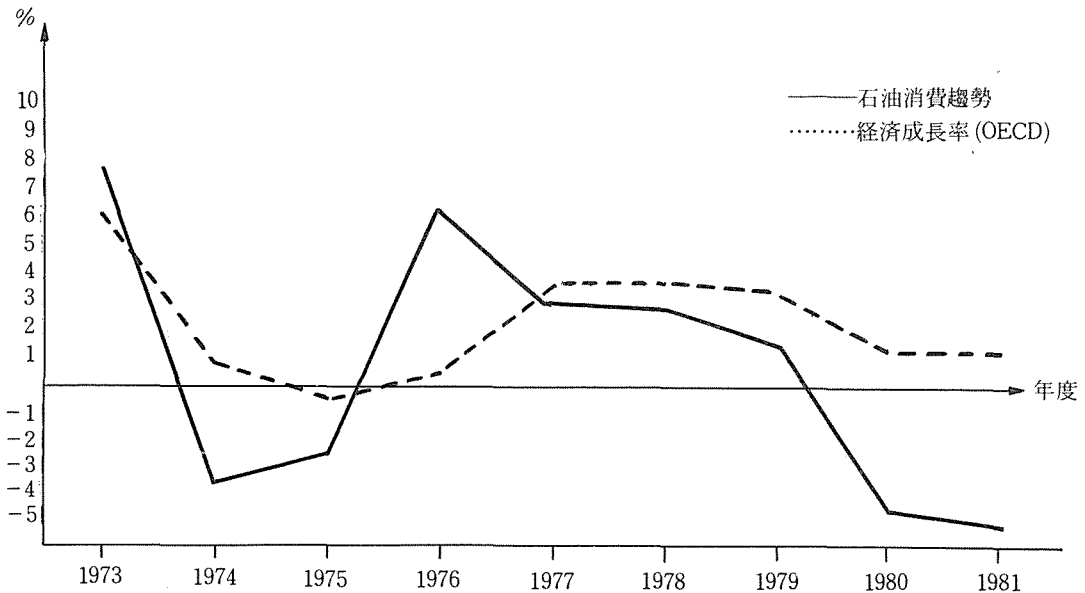
註: 1) 推定值

資料: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1980.

Oil & Energy Trends, 1982. 3. 19.

OECD, Economic Outlook, 1981. 12.

〔그림-1〕 自由世界 石油消費 趨勢



保有量 90日分을 훨씬凌駕하는超過在庫分이 82年 1/4分期들어 1日 470萬배럴씩現物市場에放出되어 이른바 在庫暴風(inventory storm)現象이發生하였다. 또한 需要減少化에 대한 OPEC의生産量 下向調整의 努力에도不拘하고非 OPEC國家들의生産량이相對적으로增加하여 OPEC의市場占有率이全世界生産量에서 75년에 51%였던 것이 80년에는 43.4%, 81년에는 38.8%로 떨어져서 OPEC의供給量統制機能이弱화되었다. 이러한傾向은 82年들어 더욱深化되어 82年 1月에서 5月까지非OPEC의生産량이前年同期에 비해 2.7%가增加한反面, OPEC은 25.2%가 감소하여自由世界原油生産量(LNG제외)의 48%에不過하게 되었다.

2. 原油市場의 展望

다음에서는 原油市場의 需要·供給을 決定하

〈表-8〉世界經濟 展望

(單位: %)

	1975~79	1980	1981	1982	1983	1984~87
世界	4.3	2.0	1.7	1.2	3.5	3.4
先進國	4.0	1.3	1.4	0.8	3.6	3.0
後進國	5.4	3.1	1.6	1.5	3.3	4.7
共產國	4.6	3.7	2.6	2.8	3.3	3.6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2. 7.

〈表-9〉自由世界 原油需給展望

(單位: 百萬B/D)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消費							
O E C D	34.85	32.20	30.40	31.11	32.00	32.65	33.30
O P E C	2.44	2.60	2.70	2.93	3.25	3.52	3.90
其他後進國	9.17	8.90	8.60	9.03	9.50	9.93	10.16
合計	46.46	43.70	41.70	43.07	44.75	46.10	47.36
供給							
O P E C	26.90	22.55	19.20	22.00	24.14	25.56	26.11
先進國	12.86	12.91	13.35	13.55	12.94	12.90	13.00
共產國에서輸入、 非OPEC後進國	5.46	5.98	6.52	6.80	7.20	7.54	7.95
非OPEC後進國	1.27	0.97	1.15	0.85	0.47	0.40	0.30
在庫放出	0.07	1.29	1.48	-0.13	0.00	0.00	0.00
合計	46.46	43.70	41.70	43.07	44.75	46.10	47.36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2. 5.

는 要因을 中心으로 原油市場을 展望하기로 한다.

가. 需要側 展望

82年 下半期부터豫想되는世界景氣의回復은 1次 石油波動後의回復期인 75~79年보다 그速度가緩慢하고 에너지節約 및 代替에너지 開發 등으로單位 GNP 生産에 對한 에너지投入도漸減하여景氣回復에 따른石油需要도역시緩慢할 것으로展望된다.

따라서〈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石油供給量 중에서 OPEC의供給量도緩慢히增加할 것이며 이는 82年初 OPEC의生産能力인日産 3,120萬배럴을基準으로 할 때 그平均稼動率이 82·83년에 각각 62%, 71%의水準에不過함을 의미한다.

나. 供給側 展望

原油 需要增加率은 先進諸國의 에너지節約 및 代替에너지 開發로 과거에 비해 낮은 반면非OPEC國家의生産은繼續增加하고 있다. OPEC의 5月 現在稼動率이 54%에 지나지 않아現

在의 生産施設로도 石油 供給의 不足은 招來되 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石油市場의 沈滯로 OPEC産油國들의 經常收支가 縮小되고 一部國家에서는 開發計劃을 縮小하지 않는 限 外部借入의 必要性이 커지며 이의 補填 및 原油市場確保를 위해 生産量을 增加할 必要性이 恒상 존재하고 있다.

다. 油價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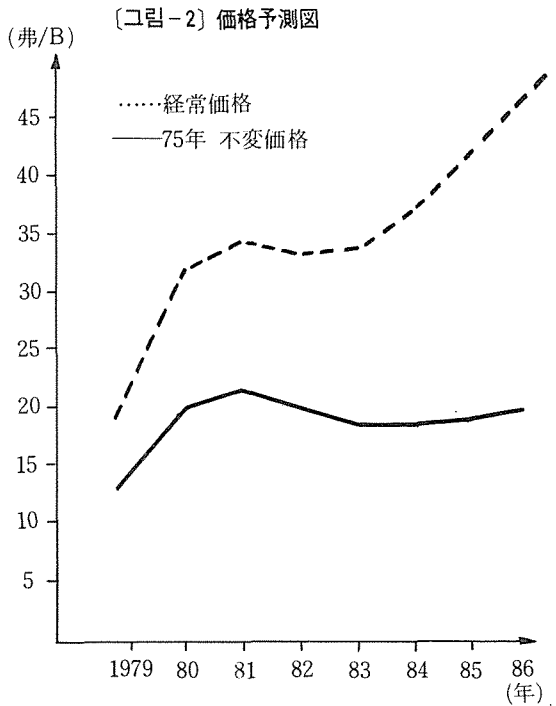
短期的으로 油價의 推移는 世界景氣의 回復 速度와 이에 따른 에너지需要의 推移에 左右될 것으로 展望된다. 앞서서도 指摘한 바와같이 今年 下半期부터 豫想되는 世界景氣回復은 比較的 緩慢할 것이며 原油在庫의 下向調整이 今年 上半期中에 完了될 것으로 豫想되어 石油價格은 상당히 安定된 水準에서 維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OPEC側으로서도 石油의 價格彈力性이 낮으므로 消費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채 産油國의 收入만 減少시킬 可能性이 크므로 短期的으로는 油價의 追加引下로써 經濟的 效果를 期待할 수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따라서 中東地域에서 예기치 못한 事態가 發生하지 않는 限 1982年中 油價는 배럴당 34달러線에서 維持될 것으로 豫想된다.

1983년부터 85년까지는 世界 景氣回復의 速度가 加速化하여 石油需要가 擴大될 것이나 實質價格은 小幅의 下落 내지 保合勢를 維持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 主된 理由는 2次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世界 各國에서는 代替에너지開發 및 産業構造의 에너지節約型으로의 改編이 持續되어 에너지 效率이 높아짐으로써 生産單位당 에너지消費量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景氣回復이 本格化하더

라도 GNP單位당 原油所要量은 減少하여 全体的으로 石油 所要量의 급격한 增加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供給要因으로서 OPEC의 過多한 生産能力과 非OPEC諸國의 原油生産이 持續的으로 增加되어 世界全體로 볼 때 長期的인 供給不足의 現象을 招來할 確率이 낮은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이라크戰爭의 擴大, 이스라엘·아랍國間의 戰爭, 回教革命의 波及으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 政情不安 등의 政治的 要因과 消費國들의 代替에너지 開發努力의 疎忽 등은 80年代 後盤에 새로운 石油危機를 惹起할 不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表-10〉 原油價格 予測

(單位: \$/bbl)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經 常 價 格	18.7 (44.3)	31.0 (65.8)	34.6 (11.6)	33.3 (-3.9)	33.7 (1.3)	37.2 (10.4)	42.0 (12.9)	47.0 (11.9)
75年 不變 價格 ¹⁾	13.28 (27.6)	19.36 (45.8)	20.8 (7.7)	19.2 (-7.7)	17.9 (-7.0)	17.9 (0.2)	18.5 (3.3)	19.2 (3.7)

註: 1) 換率變動의 영향 包含

* ()안은 前年對比 增減率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2. 5.

라. 原油市場의 變動과 中東經濟

이란, 이라크를 제외한 中東產油諸國은 다른 開發途上國에 비하여 絶對人口가 적은 반면 石油資源을 바탕으로 한 資本調達이 비교적 容易한 편이다. 따라서 線濟開發 또한 資本, 技術集約的인 經濟開發戰略이 採擇되고 있다. 이와같은 經濟開發戰略 때문에 中東諸國의 經濟開發은 總投資中 下部構造 擴充投資가 1/3 以上을 占하고 있는 經濟開發 初期段階의 樣相과 石油化學 플랜트등 技術集約産業의 建設이 共存하고 있는 二重經濟的(dualistic economy) 特性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經濟開發戰略은 70年代의 油價上昇으로 인한 外換收入 增加에 힘입어 高度長度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最近들어 原油의 供給過剩 解消를 위한 生産量의 下向調整이 불가피해 지면서 產油國 石油收入의 減少를 가져왔고, 이는 石油部門 成長率의 急激한 下落으로 인하여 非石油部門의 成長에도 불구하고 82·83년의 OPEC 國家의 GNP는 많은 나라에서 負의 成長을 할 것으로 展望되며 83年 이후에야 油價 및 生産量이 增大되면서 GDP成長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最近 原油價格의 下落 및 海外原油需要 減少로 인하여 外換收入이 대폭 減少되는 반면 公共支出을 통한 開發計劃의 持續的 推進 및 이에따른 輸入의 增加로 經常收支가 크게 惡化될 것으로 豫想되어 왔다. 그러나 73年 이래 累積된 經常收支 黑字는 外換保有高 및 海外投資 資産의 急速한 蓄積을 가져왔고 近來의 國際高金리로 인한 投資收益의 增加는 經常收支의 惡化를 緩和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剩餘資産의 資本利得은 82·83年 貿易收支의 현저한 減縮에도 불구하고 開發計劃의 무리없는 遂行의 중요한 資金源으로 活用될 것이다.

V. 中東 建設輸出 展望

우리나라의 中東建設輸出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라크의 3國에 置重되어 있으며 이들 3國에 대한 建設輸出이 全體 中東建設輸出의 95% 以上을 占하고 있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이들 3國을 中心으로 經濟展望分析을 통해 建設輸出의 展望을 살펴 본

(表-11) 「걸프」灣 國家의 經濟成長率 展望

(單位: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사우디아라비아	8.59	8.67	-3.60	-9.51	4.67	4.83	7.91
쿠웨이트	-19.79	-14.31	-6.80	15.59	10.41	5.08	5.04
이란	-27.37	-11.99	-2.50	4.99	9.91	5.16	6.21
이라크	-14.59	-32.53	-2.06	7.24	33.98	8.91	15.02
아랍에미리트	-3.69	-5.77	-5.42	10.73	6.98	2.51	4.43
平均	-9.77	-5.68	-3.61	-0.72	10.04	5.30	7.95

資料: WEFA, Middle East Economic Outlook, 1982, 4.

(表-12) 石油輸出國家¹⁾의 海外投資資産 累計

(單位: 10億달러)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合計(1974~81)
經常收支黑子	68	35	40	31	3	70	115	71	433
石油部門資本去來	-12	1	-6	2	-9	-9	1	2	-22
對外借入	2	3	8	10	16	10	7	8	64
海外投資資産	58	39	42	40	21	71	123	81	475

註: 1) OPEC國家중 가봉, 에콰도르가 빠지고 오만이 包含되어 있음.

資料: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2, 4.

후, 이를 綜合하여 發注 및 受注展望을 分析하
기로한다.

1. 國別 建設發注要因 分析

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1979~81年 사이 大幅의 油
價上昇으로 莫大한 外換收入을 올렸다. 이와같
은 石油收入의 增大는 年間 10%를 上廻하는 投
資增加를 可能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年平均
8~9%의 높은 成長을 이룩하였다. 또한 높은
投資伸張은 建設發注量의 大幅의 增加와 더불어
刮目할 만한 用役輸入의 伸張을 誘發하였다.

그러나 82년에 접어들어 海外石油需要의 減
少로 인한 石油部門의 生産이 대폭 減縮되어서
非石油部門의 持續的인 成長에도 불구하고 GDP
는 負의 成長을 記錄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80年 5月에서 3月까지를 分析對象으로 볼때 사
우디아라비아의 石油收入은 81/82년에 비해 1983
~85년까지는 石油部門의 沈滯 및 이로인한 外
換收入 縮小 및 投資增加의 鈍化로 成長은 踏步
狀態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非石
油部門을 中心으로 한 固定投資는 繼續되어 非
石油部門은 6~8% 成長이 持續되며 이에 따른
用役輸入 伸張率은 12~15%의 水準으로 維持할
것으로 보인다. 外換收入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非石油部門의 投資擴大가 可能한 주된 理由는
그간 累積는 經常收支 黒字로 1980年 現在 1,600
億달러에 달하는 海外投資資産에서 年間 100億
달러 정도의 公共支出도 별 무리없이 遂行될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우
디아라비아의 경우 投資財源의 調達面에서 開發
計劃遂行上의 蹉跌이 생길 可能性은 稀薄할 것
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第3次 計劃期間中 工事의 完成을 위
해 豫想發注量의 상당한 部分이 第1,2次 會計
年度인 80/81, 81/82年度에 發注가 完了되었다.
이는 年度別 執行豫算에 反映되어 있는 바, 82
/83年 會計年度에 全體豫算中 新規事業豫算의
比重이 前年度의 65.7%에서 11%로 크게 줄었
다. 이와같은 趨勢로 볼 때 3次5個年計劃의 殘
餘期間중 年間發注額은 올해 水準보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추측된다.

第3次 5個年計劃 以後에는 世界經濟의 本
格的 成長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經常 收支
도 改善되고 따라서 開發計劃의 擴大推進에 所
要되는 資源調達上의 制約要因이 크게 緩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次に 걸친 經濟·社會
開發을 통해 單純下部構造의 建設은 대부분 完
了되는 반면 高度 資本·技術集約的인 設備 및
施設投資의 比重이 높아질 것이므로 先進國의
受注比率이 現在보다 점점 높아질 可能性이 濃
厚하다.

(表-13) 사우디아라비아의 主要 經濟指標 (前年比 增減率)

(單位: %)

	1979/80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GDP 成長率(%)	8.6	8.7	- 3.6	- 9.5	4.7	4.8	7.9
非石油部門	11.1	11.9	8.8	7.4	7.1	6.1	8.0
石油部門	7.7	7.7	- 9.7	-19.9	2.1	2.5	6.2
精油部門	6.3	0.8	4.8	7.2	13.2	18.5	21.9
政府石油收入(10億弗)	56.90	90.71	87.17	72.25	74.80	83.49	98.76
政府石油收入(%)	66.18	59.42	- 3.90	-17.12	3.52	11.62	18.79
政府消費支出(%)	12.5	15.1	10.9	7.0	7.8	5.4	5.4
總固定投資(%)	10.2	13.1	10.0	8.2	6.2	5.3	7.2
總輸出(%)	13.3	12.2	- 7.8	-15.6	2.0	3.0	6.4
總輸入(%)	11.2	13.9	15.0	12.8	11.9	10.6	10.1
用役輸入(%)	28.3	36.5	15.4	15.2	15.2	12.2	11.6
經常收支(10億弗)	9.59	39.80	44.00	12.20	4.00	- 1.10	- 1.80

資料: WEFA, Gulf Economic Outlook, 1981. 10.

WEFA, Middle East Economic Outlook, 1982. 4.

따라서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보면 短期的으로는 單純土木工事的 發注量 자체가 줄어들 可能性이 있을 뿐 아니라 自國化政策에 따라 現地法人과의 競爭이 深化될 것으로 보인다. 長期的으로는 高度技術集約工事的 增加에 비해 技術蓄積이 未洽하기 때문에 技術開發 및 合作投資 등을 통한 競爭力 強化가 持續되지 않는 限 앞으로의 市場開拓에 많은 어려움이 豫想된다.

나. 이 라 크

이라크는 總投資 1,330億달러 규모의 5次 5 個年計劃을 樹立, 첫 해인 1981년에 戰爭復舊事業 및 住宅, 高速道路建設을 中心으로 285億달러 상당의 資金投入을 試圖했었다. 그러나 이란과의 戰爭이 長期化되고 또 이로 인해 石油生産施設이 大幅 破壞되어 당초 計劃의 修正이 不可避하였다. 이에 따라 5個年計劃을 戰爭被害復舊 특히 石油生産施設의 復舊 및 國防産業에 優先을 둔 短期計劃으로 代替하였다.

3 年째 繼續된 이란과의 戰爭으로 이라크의 石油生産能力은 1982年 4月 現在 戰前日産 350 萬배럴의 절반이하의 水準으로 減縮되었다. 또한 稼動率도 50% 水準에 머물러 OPEC의 生産割當量 120萬배럴에도 미치지 못하여 近來年間 60~70億弗 상당의 經常收支 赤字를 보고있는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이에 따라 外換保有 高 또한 戰前的 절반인 150億弗 水準에 지나지 않으며 現在 戰費調達 및 戰爭 被害復舊事業을 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220億弗상

당의 借款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의 經濟展望은 이란과의 戰爭持續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現在 優先적으로 推進中인 石油生産 復舊事業이 1983년부터 本格化하여 1985년까지 石油生産이 戰前水準을 回復한다고 假定하면, 世界景氣回復으로 인한 石油輸出의 伸張과 더불어 外換受入 또한 增加하여 經常收支는 84年度에 均衡을 回復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같이 外換收入의 增加는 非石油部門의 投資擴大를 통하여 國民總生産은 1983년에는 正의 成長을 回復하여 1984년부터는 戰前水準의 高度成長을 持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非石油部門의 投資擴大는 1983년부터 大幅의 輸入需要의 增加를 誘發할 것이나 原油輸出의 增加에 힘입어 經常收支 또한 1984년에는 均衡을 回復할 것으로 展望된다.

위와 같은 經濟展望으로 볼때 短期的으로는 심한 經常收支의 赤字로 大規模 建設工事的 新規發注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나 石油生産이 戰前水準에 육박하게 될 1984~85年 경에는 高速道路 建設·시멘트工場 및 精油生産設備 擴張이 促進될 것으로 予想된다.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建設工事 發注額이 減少할 것이나 長期的으로 볼 때는 比較的 많은 人口, 龍대한 石油資源 및 肥沃한 農土등을 考慮할 때 成長潛在力은 대단히 큰 편이며, 建設 發注額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表-14〉 이라크의 主要 經濟指標 (前年比 增減率)

(單位: %)

	1979/80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GDP 成長率(%)	-14.6	-32.5	-2.1	7.2	34.0	8.9	15.0
非石油部門	5.3	-2.3	-5.2	0.3	8.5	9.7	11.1
石油部門	-27.4	-60.8	5.2	21.8	78.7	8.1	19.3
政府石油收入(10億弗)	24.35	9.03	9.06	11.84	25.95	32.13	43.83
政府石油收入(%)	18.44	62.91	0.34	30.66	119.14	23.83	36.42
政府消費支出(%)	15.8	16.0	8.7	10.3	7.7	3.9	-0.7
總固定投資(%)	4.2	-6.5	-13.6	4.4	10.5	5.7	14.4
總輸出(%)	-29.9	-68.6	4.9	27.9	100.1	8.3	21.0
總輸入(%)	32.1	-1.1	-0.9	3.5	14.2	15.4	9.7
用役輸入(%)	25.8	-51.3	5.3	20.0	29.2	19.4	18.9
經常收支(10億弗)	10.9	-5.9	-7.6	-6.8	0.9	-0.7	5.5

資料: WEFA, Middle East Economic Outlook, 1982. 4.

다. 리 비 아

리비아는 지난 20여 년간(1960~77) 年平均 16.6% 水準의 광폭한 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石油部門의 急膨脹으로 他産業과의 不均衡이 深化되었으며 教育部門의 投資 未洽으로 인한 高級人力 供給不足은 특히 工業部門 成長에 主要한 制約要因이 되었다. 또한 人口의 都市集中 및 農業의 萎縮은 食糧의 海外依存度를 높여 왔다. 따라서 第6次 5個年計劃에서는 制限된 石油資源의 效率의 利用을 기하고 脫石油産業化의 長期的 成長潛在力의 強化를 위한 非石油部門, 특히 教育·農業·住宅·通信部門에 投資의 力點을 두게 되었다.

리비아는 1982年 第6次 5個年計劃의 第2次年度에 접어들었다. 同 計劃期間中 投資規模는 第4次 計劃期間中 投入額의 두배가 넘는 625億弗이 計劃되고 있다. 이와 같은 投資規模의 급격한 擴大는 石油輸出을 통한 外換收入에서 調達이 可能하리라는 前提위에서 樹立된 것이다.

그러나 1982年 美國의 對리비아 禁輸措置 및 이에 따른 美國 石油資本의 撤収로 石油生産 및 需要가 激減되었다. 이 結果 1982年 5月 現在

稼働率은 40%로서 1日 生産量은 OPEC 쿼터량 75萬배럴을 약간 上廻하고 있다. 또한 隣接 國인 이집트와의 對峙로 인한 莫大한 國防費支出로 財政이 圧迫을 받고 있어 日本 中東經濟研究所의 推計로는 82年 리비아의 經常收支가 72億弗의 赤字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리하여 製鐵工場등 大規模 프로젝트의 發注를 中斷하고 特別金融委員會를 設置, 外換管理를 엄격히 規制하고 있다. 既成高 代金을 原油로 代替支給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0~300億달러에 이르는 海外資産이 있으므로 住宅·教育施設등의 投資는 繼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82·83年間을 볼 때 建設景氣는 沈滯할 것이나 長期的으로 非石油部門 특히 住宅·都市建設·通信 등 서비스 部門 및 農業開發에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石油生産이 增加하면 社會間接部門의 膨脹과 함께 發注高 또한 增加할 것으로 期待된다.

2. 發注高 展望

中東諸國 開發計劃은 油價의 變動 및 石油需

(表-15) 「걸프」國別 用役輸入 및 經常收支

(單位: 10億달러)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사 總 用 役 輸 入	24.3	33.1	38.2	44.0	50.7	56.9	63.5	70.1
(%)	(28.3)	(36.5)	(15.4)	(15.2)	(15.2)	(12.2)	(11.6)	(10.4)
經 常 收 支	9.5	39.80	44.00	12.20	4.00	- 1.10	- 1.80	0.60
쿠 웨 이 트 總 用 役 輸 入	2.7	3.7	4.4	5.0	6.3	7.6	9.1	10.9
(%)	(24.6)	(38.7)	(18.5)	(13.6)	(26.0)	(20.6)	(19.7)	(19.8)
經 常 收 支	14.21	16.96	10.60	6.10	5.00	5.70	4.10	3.10
이 總 用 役 輸 入	5.9	6.2	5.1	4.3	4.0	6.8	8.2	9.6
(%)	(-21.6)	(6.9)	(17.7-)	(-15.7)	(- 7.0)	(70.0)	(20.6)	(17.1)
經 常 收 支	5.50	- 2.10	- 5.40	- 6.60	- 2.00	1.90	3.40	2.60
이 總 用 役 輸 入	3.1	3.9	1.9	2.0	2.4	3.1	3.7	4.4
(%)	(19.2)	(25.8)	(-51.3)	(5.3)	(20.0)	(29.2)	(19.4)	(18.9)
經 常 收 支	12.0	10.9	- 5.9	- 7.6	- 6.8	0.9	- 0.7	5.5
아 랍 에 미 레 이 트 經 常 收 支	5.3	10.5	8.3	4.3	4.6	5.7	5.6	6.3
오 經 常 收 支	0.45	1.45	2.37	2.10	2.00	2.10	2.20	2.40
카 經 常 收 支	1.88	3.76	3.82	2.27	2.95	3.62	3.63	3.84
합 經 常 收 支	48.97	81.27	57.79	13.22	10.45	18.02	16.43	24.34

資料: WEFA, Middle East Economic Outlook, 1982. 4.

要의推移에 따라 短期的으로는 다소의 起伏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賦存資源을 바탕으로 한 脫石油 資本集約的 産業化의 努力은 꾸준히 持續될 것이다.

82년부터 86년까지를 分析對象으로 할 때 近來 石油需要 및 外換受入의 減少로 인하여 82·83년에는 經常收支가 最低水準을 記錄하고 84년부터는 점차 好轉될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戰爭 当事國인 이란, 이라크와 美國의 禁輸對象國인 리비아에서는 經常收支의 大幅의 惡化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東諸國 全體로 볼 때 1974년부터 1981年末까지의 海外投資資產 累計가 4,000億弗 以上에 이르고 이를 海外에 投資하여 얻어지는 投資收益만도 年間300億弗 이상에 達하고 있어 投資收益은 현재 推進中인 개발계획의 財源으로 活用될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심한 經常收支 赤字가 예상되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를 除外한 國家에서는 開發計劃推進에 필요한 短期的인 用役輸入의 縮小調整은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 建設輸出이 集中되어 있는 中東 3個國中 리비아·이라크 등의 경우는 發注高가 현저히 減少될 것으로 展望되나 中東建設輸出의 大宗을 이루는 사우디아라비아市場은 經常收支惡化로 인한 發注高의 縮小調整의 可能性은 稀薄할 것으로 期待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3次 開發計劃이 3次年度에 이룸에 따라 新規發注工事は 計劃初期인 80/81, 81/82 會計年度에 비해 줄어들 可能性이 있다.

이렇게 볼 때 向後 2~3年間 中東市場의 建設 發注高의 增加는 鈍化될 것으로 보이며 特히 單純土木工事的 發注高는 점차 그 比重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인 觀點에서 86年 이후에는 石油收入의 增大에 따라 建設發注高가 上昇勢로 돌아설 것으로 予想되나 發注工事的 構成은 現在の 單純土木工事 中心에서 石油化學플랜트 등 技術集約産業, 設備投資로 移轉될 것이다.

3. 建設受注 展望

앞으로 2~3年間은 中東神油國들의 經常收支 惡化로 인한 發注高 增加勢의 鈍화와 함께 우리

나라의 建設受注도 그 增加率이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對象國別로 살펴보면 쿠웨이트·이라크·리비아 등은 短期的으로 投資財源調達이 問題視되므로 新規受注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予想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投資財源의 不足은 없으나 開發計劃期間中 工事的 年度別 配分上 1983~85년의 新規受注는 計劃開始年度인 1980~82년에 비해 減少할 것이다.

이러한 短期的의 受注展望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82년에 들어서도 建設受注는 현저히 增加하여 7월까지 前年同期에 비해 43.5%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그 主된 이유는 最大 發注 國家인 사우디아라비아의 第3次 5個年計劃의 2次 會計年度가 82年 4月末에 마감되므로 豫算 執行上 마무리發注가 集中된데다 우리 建設業體들이 國內建設景氣萎縮에 따라 海外受注活動을 大폭 強化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를 除外한 餘他國家에서는 受注量이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長期的으로는 中東國家들의 石油收入 增大로 建設發注高는 늘어날 展望이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등 戰後復舊事業을 제외하면 그때까지 대부분의 國家에서 下部構造建設이 이루어져서 非石油産業 建設을 위한 技術集約的 플랜트工事が 主가 될 것으로 予想된다.

따라서 長期的인 受注展望은 中東諸國의 投資財源調達에 問題가 있다기보다 中東諸國의 建設需要構成의 變化 및 이에 対応할 수 있는 韓國企業의 供給能力에 달려있다. 具體的으로 勞動集約的인 土木·建築工事的 경우에는 中東國家들의 自國化政策 및 低賃金勞動者를 바탕으로 한 餘他國家와의 競爭이 深化되고 高度 技術集約的인 플랜트工事的 경우에는 先進國家들에 비해서 技術水準面에서 比較劣位에 있기 때문이다.

VI. 中東 建設輸出의 方向

中東에 대한 建設輸出이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미치는 影響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國際收支·雇傭效果등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韓國企業들은 그 동안 中東國家들의 莫大한 外貨受入 및 높은 工事單價, 우리나라의 低賃金과 높은 勞動生産性에 힘입어 높은 收益率을 올려놓

고 受注額도 刮目할 만한 伸張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与件은 80年代로 접어들면서 樣相이 바뀌기 始作하였다. 對外的으로는 競爭力 弱화 및 收益性 低下 등의 問題点이 나타나고, 對內的으로는 国内建設景氣의 沈滯 등이 겹쳐 建設會社의 財務構成惡化라는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81年末 현재 中東에서의 建設工事に 대한 支給保證이 GNP의 11% 以上을 占하고 있으므로 少数의 海外建設工事的 不實이 国民經濟에 미칠 수 있는 波及效果를 考慮한다면 海外建設工事に 대한 慎重한 政策配慮 및 建設業體 自體의 經營合理化, 競爭力強化의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中東 建設輸出의 主要 問題点으로는 낮은 技術水準, 資金部門의 比較優位性 喪失 및 中東의 自國化政策에 따른 競爭力弱화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로 指摘할 수 있는 問題点으로는 平均收益率의 低下를 들 수 있다. 이는 過當競爭으로 인한 工事單價의 下落, 先受金 比率 下向 調整 및 既成高 代金 支拂遲延에 主要原因이 있다. 우리나라 企業은 国内 建設景氣의 沈滯로 인하여 海外受注活動의 強化가 불가피하였으며 이는 工事單價의 下落을 가져와서 尙當수의 工事が 収支面에서 不振·不實工事を 招來하는 主要原因이 되 되었다. 이와 같은 不實·不振工事は 既成高 代金 支拂遲延을 가져왔고 또한 發注國의 外換受入減少는 先受金 引下를 招來하였다. 先受金比率는 종래의 20% 水準에서 現在 推進中인 工事的 경우 平均 13.5%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表-16〉 國別 製造業 賃金上昇趨勢 比較

(1970=100)

	韓國	방글라데시	印度	파키스탄	핀란드	터어키
1970	100	100	100	100	100	100
1971	116	110	104	99	114	114
1972	132	114	110	105	128	127
1973	156	140	115	185	140	160
1974	211	151	115	198	147	199
1975	268	198	115	232	155	251
1976	361	217	191	254	-	382
1977	484	215	206	-	-	357

資料: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0.

둘째로, 對內的으로는 建設景氣의 沈滯로 住宅在庫가 增加하고 地下鉄 등 公共工事代金の 支拂遲延은 既成高代金 遲延과 더불어 資金回轉上的 隘路 및 財務構成의 惡化를 招來하였다.

세째, 우리 나라는 中東 建設進出 初期에 資金部門에서 比較 優位가 維持되었다. 그러나 78年 이후 年平均 20% 이상의 急激한 賃金上昇때문에 現在 印度, 파키스탄 등의 低賃金勞動者를 바탕으로 한 餘他國家에 對해 比較優位性이 점차 떨어져지고 있다.

〈表-17〉 우리나라의 製造業 賃金上昇率

(단위: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34.7	13.4	34.3	28.6	22.7	20.1

資料: 經濟企副院, 『韓國統計月報』 1982.5

中東建設現場에서 81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1人當 月平均 勞務費가 1,210달러인데 반해 방글라데시가 430달러, 印度, 파키스탄이 各各 540달러, 660달러로 勞賃競争上 不利한 立場에 있다. 또한 技術進歩의 未洽으로 점차發注比率이 높아지는 高도의 技術集約的인 플랜트·엔지니어링分野 등에서 先進諸國에 比해 比較劣位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을 克服하고 建設輸出市場의 長期的인 競爭力 提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建設業界 自體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政策上的 配慮가 있어야 하겠다.

첫째, 앞으로 發注比重이 높아지게 될 技術集約工事 部門의 競爭力強化를 위하여 集約的 技術開發이 要請된다. 또한 自國化政策을 克服하기 위하여 現地業體와 合作投資를 擴大하고 先進諸國과의 分業 및 合作工事的 擴大를 통한 技術移轉의 促進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勞働生産性提高를 바탕으로 한 資金部門의 競爭力強化를 위해 技術蓄積과 더불어 資金部門의 比較優位의 回復이 要請된다. 따라서 海外派遣勞動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持續的 努力은 물론 工程 및 技術水準에 따라서는 第3國人의 選別的 活用이 보다 積極化되어야 한다.

세째, 建設企業 스스로가 經營의 專門化 및 收益性 爲主의 經營活動을 펴나가야 한다. 따라

서 從來 収益性을 도의시한 外形爲主의 受注活動, 無分別한 金融·稅制支援으로 인한 不實·不振工事 등의 弊害를 是正하기 위해 受注對象 工事に 對한 專門審査機構의 設立 및 支拂保證 銀行의 自体審査權 強化 등 制度的 裝置가 要請 된다.

네째, 既進出市場의 収益性 提高를 위한 努力은 물론 새로운 市場의 開拓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政治的 이유로 中斷된 이란市場에 再進出은 물론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諸國 및 中南美 등 市場의 多邊化가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新市場開拓을 支援하기 위해 國

際協力 등을 통한 外交的인 뒷받침이 強化되어야 한다.

다섯째, 建設工事は 發注情報은 물론 國際原資材市場 動向에 관한 迅速한 情報管理 如何에 따라 受注 및 収益性이 크게 左右된다. 따라서 建設情報體制의 確立이 要望되고 아울러 우리나라 企業들간의 過當競争을 방지하기 위한 協調機構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對內的으로는 國內建設景氣 活性化를 위한 金融面의 배려는 물론 在庫累增으로 인한 短期運營資金의 원활한 回轉을 위해 政府發注工事 代金の 適期支給이 要請된다.*

産油國動向

아랍諸國, 이란에 政治·經濟的 制裁 警告

아랍諸國들은 만약 이란이 알제리의 새로운 仲裁案을 거부한다면 처이란 政治 및 經濟的 보이콧을 實施할 것이라고 사우디의 主要日刊紙인 Al-Riyadh紙가 최근 報道했다.

同紙는 駐쿠웨이트 알제리大使의 말을 引用, 最近 이슬람 親善使節團의 平和努力이 失敗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가 곧 仲裁를 再開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失敗한다면 처이란 制裁措置를 決定하기 위한 아랍 高位會談이 開催될 것이라고 말했다.

Al-Riyadh紙는 지금까지 中東産油國들이 처이란 制裁措置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란이 이를 구실로 임의적이고 狂暴한 軍事行動을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한 후 그러나 이란

의 非妥協性 때문에 中東産油國들의 政策이 變更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同紙는 또 美國과 西方諸國들은 이·이 戰爭이 油田地帶로 擴散될 可能性에 대해 점점 우려하고 있으며 美國은 이에 따라 最近에 所謂 신속배치군(RDP)의 兵力을 倍增하며 터키에 RDP 前進本部를 設置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同紙는 美國이 西歐 同盟國들에게 이·이 戰에 대한 不安感을 주지시켰으며 最近에 열린 美·蘇外相會談에서도 이·이戰이 主要問題로 論議되었다고 밝힌 후 美國은 원하기만 하면 戰爭을 끝낼 수 있다라는 한 未確認 이라크 外交官의 말을 引用, 美國은 이·이戰을 終結시키기 위한 한 計劃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PEC, 4/4分期 産油量 1,950萬b/d

OPEC의 今年度 4/4分期 産油量은 昨年 同期의 2,030萬b/d(NGL 包含)보다 減少된 1,950萬b/d가 될 것이며 今年 總産油量도 昨年의 2,250萬b/d보다 大폭 줄어든 1,845萬b/d로 推定된다고 런던에 所在한 Grieverson, Grant 社가 展望했다.

同社는 만약 今年 冬節期가 酷寒이라면 平年度 冬節期 水準으로 推定한 OPEC 4/4分期 産

油量 1,950萬b/d는 約 100萬b/d가 높아질 것이라고 分析했다.

同社는 또 1983年の OPEC産油量은 先進國의 經濟가 回復되지 않으면 1,700~1,800萬b/d로 떨어질 것이며 34弗의 基準油價는 來年末 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나 引下될 可能性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